

장애인 맞춤형훈련센터 유치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 박승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설립 요청... 내년까지 유치 고용활성화 등 조성

전주시가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문직업훈련기관 유치를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2일 전주시시장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전문훈련기관인 맞춤형훈련센터의 전주 설립을 요청했다.

맞춤훈련은 사업주(기업)와 맞춤형훈련센터가 훈련 직종과 수준, 내용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기업의 실제 구인수요를 반영해 훈련생을 모집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면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전국에 1곳(서울)의 맞춤형훈련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2곳(천안, 창원)이 개소·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이러한 맞춤형훈련센터를 유치해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맞춤형훈련센터 설립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2월에는 공단과 합동으로 서울맞춤훈련센터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방식과 성과를 확인한 후 센터설립 유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또, 센터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 논리개발을 위해 기업체 및 구직 장애인에 대한 수요 조사도 자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전주에 자동차 부품·탄소섬



김승수 전주시장은 22일 시장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직업훈련기관인 맞춤형훈련센터의 전주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유·항공기브레이크 제품 등 탄소산업 관련 업체를 포함 총 1,200여개의 사업체와 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이 유치해 있는 만큼, 맞춤형훈련센터가 설립되면 연간 100명의 장애인이 맞춤형훈련을 통해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맞춤형훈련센터 외에도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주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함께 요청했다.

이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30대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59%(10만 5000명)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다른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가 없어 특수학교(학급) 졸업 후 사회적 진출을 포기하고 있어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박승규 이사장은 이날 "일은 장애를 넘어서는 가장 큰 힘이다"라며 "아직까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체들이 많은 실정"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공

단과 전주시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전문가들, 의회와 행정 등 모두가 마음을 모아 '장애인의 삶을 바꿀 첫 번째 도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서 '폭력 시위' 주도

경찰, 정광용·손상대 구속영장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친박(친박근혜)단체 고위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정광용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력기운본부(탄기국)' 대변인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모임)' 회장과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손씨는 탄기국 집회에서 사회자로 활동했다.

정씨 등은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며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탄기국 집회가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면서 집회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 등 각각 부상당하고 경찰차량 15대 등의 경찰장비가 파손됐다.

정씨 등의 선동으로 흥분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취재기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집회 당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이 전해지면서 흥분한 시위 참가자들이 강력 반발하며 현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 등은 "돌격하라"고 외치며 불법 시위를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 등의 선동에 의해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밟을 때 흉통을 호소하는 등 과격 양상을 보여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과 의경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정씨와 김씨에 대해 집회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선동 발언으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3월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한 시위참가자 유족 3명으로부터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뉴스

행방불명된 여성 가족에 인계

정읍경찰서(서장 김중화) 상동지구대(대장 김수찬)는 지난 21일 새벽 2시경, 정읍 내장동 소재 정읍학생수련원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약 5시간 동안 행방불명된 여성 1명을 발견해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했다.

요구조자의 남편 박모씨는 "타지에서 내려와 지도도 모르는데 술에 많이 취해 있어 밤되나 조난 위험이 있었는데 경찰관의 도움으로 아내를 무사히 찾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친환경 에너지원 태양광 활용 쓰레기통 설치

완산구, 내달부터 5000만원 투입 태조로 등 5곳에 한옥마을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 기대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활용한 쓰레기통이 설치돼 전주 한옥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완산구는 22일 전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부터 총 5000만원을 투입해 한옥마을 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태조로와 은행로 등 5곳에 태양광 압축쓰레기통 5세트(10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압축쓰레기통은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만 활용해 쓰레기를 최대 8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쓰레기 적재량과 압축 횟수, 예러 정보, 수거필요 시점 등을 알려주는 센서가 부착돼 있어 쓰레기통이 꽉 차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수거 필요지역 및 시간에만 수거하면 시간 절약되고 수거차량의 운행횟수 감소 등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아울러 태양광 충전 배터리는 하루 3~4시간의 일조량으로 완충이 가능하고, 흐린 날이 5일간 지속되도 제품 작동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백순기 완산구청장은 "압축쓰레기통이 설치되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돼 악취 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법원, 최은희 도의원 1심서 직위 상실형 선고

지난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최은희(55) 의원에 게 1심서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경 전북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A후보를 지지하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처럼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

소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북체육회 임원 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례·사회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할 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체육회 소속 단체 임원 등에게 예산지원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도의회의원이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미군부대 소속 군무원 음주사고

군산 미군부대 소속 군무원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군산경찰서는 22일 미8군 전투비행단 통신대대 소속 군무원 J(31)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일 0시 10분경 군산시 금암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자신의 포드 차량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옆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장 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